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 · 조선의용군의 변화와 중국 · 소련 관계

김선호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현대사 전공
musoyu53@gmail.com

I. 머리말

II. 동북항일연군의 변화와 민족혁명 · 지휘권 문제

III. 조선의용군의 변화와 정풍운동 · 지휘권 문제

IV. 맺음말

I. 머리말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편입된 이래, 독립운동세력은 자주적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분투하였다. 이들은 투쟁방식과 사상에 따라 분화되어 각각의 방식으로 독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흐름과 공간이 크게 변화한 시점은 1937년이다. 일제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중국대륙을 침략하자, 일제와 독립운동세력의 전장(戰場)은 대륙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에 맞서기 위해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조선인 무장부대를 창설하였다. 좌파세력의 통일전선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8년 10월 10일 중국 무한(武漢)에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창설하였다.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1941년부터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 점령지역으로 북상해 1942년 7월 10일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만주지역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1936년부터 각 민족의 통일전선군대인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이 창설되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과 함께 해방당시까지 활동한 3대 조선인 무장부대로 평가되어 일찍부터 연구되었다. 이 3대 무장부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한국광복군이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의 영향력 아래 항일운동을 전개한 데 비해,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항일운동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이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동북항일연군이 중국공산당의 무장부대로 창설된 데 비해,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의 무장부대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2개 무장부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에 대한 연구는 이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해 양측을 비교하는 연구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김주용은 1940년대 항일무장부대인 한국광복군·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의 조직과 활동, 역할과 위상을 비교·분석하였다.¹⁾ 장세윤은 해방 전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활동내용과 상호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는

동북항일연군이 주로 중공 만주지부 조직의 산하에 편제되어 활동한 반면, 조선의용군은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했다고 평가하였다.²⁾

고양은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 펼친 항일투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는 동북항일연군이 항일운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군사조직체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한 데 비해, 조선의용군은 초기단계부터 성숙된 통일전선정책에 따라 군·정·학(軍·政·學) 삼위일체의 투쟁체제를 건립해 최단 기간에 광범위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였다.³⁾ 윤희탁은 동북항일연군과 화북지역 팔로군(八路軍)의 항일 전술과 투쟁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팔로군이 항일투쟁을 전개하기에 보다 유리한 외적 환경에서 중공 중앙의 일원적 명령계통 아래 항일투쟁을 벌인 것에 비해, 동북항일연군은 항일투쟁을 전개하기에 불리한 외적 환경에서 코민테른 중공대표단의 간접적인 지휘를 받아 일원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⁴⁾

선행연구를 통해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양상·인적 구성·투쟁방식·투쟁환경·항일전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해명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 1940년 전후에 겪은 정치·군사적 변화에 주목하지 못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창설 이래 중국공산당의 영향하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2개 무장부대는 1940년을 전후하여 중국공산당의 영향력과 부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부터 압도적으로 소련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2개 무장부대의 변화가 각각 선도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⁵⁾ 하지만 2개 무장부대가 겪은

-
- 1)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43(2007), 267-281쪽.
 - 2) 장세운,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2(2007), 62-96쪽.
 - 3) 고양, 「동북(東北)과 화북(華北) 조선 항일지사의 특징 비교」, 『史學志』 43(2011), 115-134쪽.
 - 4) 尹輝鐸, 「抗戰時期的 華北과 東北, 抗日戰術과 鬭爭環境의 比較研究」, 『中國史研究』 22(2003), 193-219쪽.
 - 5) 동북항일연군의 내부적 변화는 신주백과 와다 하루키가, 조선의용군의 내부적 변화는 염인호가 선도적으로 연구하였다.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364-412쪽, 481-506쪽; 와다 하루키 저,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창작과비평사, 1992), 224-265쪽;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3), 189-234쪽.

정치·군사적 변화의 차이점과 특징은 해명되지 않았다.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 겪은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해방 이전에 활동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한반도로 귀국해 핵심적인 정치세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한반도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 창설에도 참여하였다. 해방 이후 이들의 정치활동에는 1940년 전후에 겪은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치·군사적 변화의 결과, 해방 당시 동북항일연군은 소련극동군(蘇聯極東軍)의 지휘를 받고 있었고 조선의용군은 중국팔로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2개 무장부대의 지휘계통은 귀국방식, 귀국시점, 정치적 후원 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변화는 민족부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활동한 정치세력의 정치·군사적 특징을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 1940년 전후에 겪은 정치·군사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 같은 변화가 2개 무장부대의 성격에 끼친 영향을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2개 무장부대와 중국·소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II장 1절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정치·군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의 원인과 특징은 일제의 대토벌과 소련 입경(入境), 지휘관과 지휘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II장 2절에서는 조선의용군의 정치·군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의 원인과 특징은 정풍운동(整風運動)과 지휘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과 관련된 중국문헌·일제관헌자료·북한문헌·미군노획문서를 활용하였다.

II. 동북항일연군의 변화와 민족혁명·지휘권 문제

1. 동북항일연군의 외부적 변화와 민족혁명의 인정

국제공산당 코민테른(Comintern, Communist International)은 1935년 제7차 대회를 개최하고,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반제국주의 세력을

결집하는 반파쇼 인민전선(人民戰線) 방침을 결정하였다.⁶⁾ 중국공산당 중앙은 제7차 대회의 결정을 전달받은 후, 1935년 8월 1일 새로운 투쟁방침(8·1선언)을 제기하였다. 중국공산당은 항일구국(抗日救國)을 목표로 각종 홍군(紅軍)·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반일의용군(反日義勇軍)을 총집결시켜 전 중국의 항일연군(抗日聯軍)을 조직하라고 지시하였다.⁷⁾ 8·1선언에 따라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인민혁명군은 모두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 개편되었다. 1936년 2월부터 동북항일연군 제1군-제11군이 조직되었다.⁸⁾ 즉, 만주의 중국공산당군대는 1935년을 기점으로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북항일연군이 변화하게 된 외부적 요인은 일제의 치안숙정(治安肅正) 3개년계획이었다.⁹⁾ 만주국 군·경은 1936년 가을부터 만주지역에서 치안숙정 3개년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치안숙정의 중점을 만주의 6개 성에 두고, 동북항일연군의 소멸을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관동군은 1936년 10월부터 2만 7,500명의 병력을 동원하였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후에는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남만(南滿)지구에 대한 '대토벌'과 송화강(松花江) 하류지역에 대한 '삼강토벌(三江討伐)'을 감행하였다. 나아가 관동군은 1938년 가을부터 다시 10만 명을 투입하여 동변도(東邊道)지구에 대한 '포위토벌'을 진행했고, 그해 가을에는 '3개성 연합대토벌'을 실시하여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路軍)을 완전히 소멸하려 하였다.¹⁰⁾

동북항일연군은 일제의 대토벌 과정에서 꺾멸적 타격을 입었다. 항일연군의 고위간부 중 제2군(軍) 군장(軍長) 왕덕태(王德泰), 제4군 군장이연평(李延平), 제9군 정치부 주임 왕극인 등이 전사했으며, 제5군 정치부 주임 송일부(宋一夫), 북만(北滿) 하강특위(下江特委) 서기 백강서, 제3군

6) 반파쇼 인민전선론의 핵심은 각 정당·단체의 지도부가 부르주아적일지라도 이들 정당이나 단체, 그 개개의 부분을 반드시 반파쇼 인민전선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민전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G. M. 디미트로프 지, 김대건 편역, 『통일전선연구: 반파쇼 인민전선에 대하여』(거름, 1987), 111쪽 참조.

7)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爲抗日救國告全體同胞書」(1935. 8. 1.), 東北抗日聯軍史料編寫組, 『東北抗日聯軍史料』上(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162-167쪽.

8) 軍史科學院 軍史歷史研究部, 『中國抗日戰爭史』上(解放軍出版社, 1991), 459-480쪽.

9) 치안숙정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은 蘭星會 編, 『滿洲國軍』(蘭星會, 1940), 292-416쪽 참조.

10) 김양,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요녕민족출판사, 2001), 542-546쪽.

사(師)정치부주임 란지연 등 다수의 간부가 변절해 투항하였다. 이로써 동북항일연군의 총병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1939년까지 계속된 연합대토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지휘관과 대원들이 대거 전사했다. 1937년 7월 전후 4만 4,000명에 달했던 동북항일연군은 1941년 초에 겨우 2,500명만 살아남았다.¹¹⁾

그런데 일제의 대토벌은 동북항일연군에 새로운 과제를 부각시켰다. 중국공산당 길동성위(吉東省委) 하강특위는 1938년 1월 확대회의를 개최했는데, 조선인들의 민족해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지금 중국민족혁명전쟁이 날로 긴장한 현단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주 소수민족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해방운동을 힘있게 틀어쥐어야 한다. [...] 고려인민들에게 지금은 중국민족 생사존망의 고비임과 동시에 역시 고려민족 해방 여부의 전체적 결정고비임을 명확히 가리켜주어야 한다. [...] 우리의 객관환경 속에서 소수민족 공작과 운동은 비록 매우 많은 장애와 곤란을 받았지만, 우리는 의연히 중앙이 지시한 새로운 강령에 따라 지금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끔 각 지방 고려인 민족해방운동의 단계조직을 반드시 개척해야 한다. 이런 군중조직운동은 당이 영도하거나, 혹은 영향과 연합 하에서 고려인들의 단독계통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연군 중에서는 계속 노력하여 당이 직접 영도하는 고려독립군이거나 민족혁명군을 창조해야 한다.¹²⁾

하강특위의 결정사항 중에서 조선인들의 독립적인 단체·조직·군대를 결성한다는 방침은 이미 1936년 3월에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이 결정한 사항이다. 당시 중공대표단은 코민테른 제7차 회의의 인민전선론에 입각해 만주 길동성위에 조선인들의 독자적인 한국민족혁명당·한인 민족자치구·한국민족혁명군·반일연합전선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¹³⁾ 그러나 이 지시사항은 당시 만주지역에서 반드시 조·중 민족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¹⁴⁾

11) 이 병력에는 소련으로 월경한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보중, 「동북의 항일유격전쟁과 항일련군(초고)」, 『주보중문선』(연변인민출판사, 1987), 163-171쪽.

12) 다음 책에 전체 원문이 번역되어 있으며, “령도”와 같은 단어는 표준말로 변경하였다. 「中共吉東省下江特別委員會擴大會議議決案」(1938. 1. 5.), 中央檔案館 외 편,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31(中央檔案館, 1989), 326쪽, 김성호,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423쪽에서 재인용.

13) 「中共吉東省委致饒河中心縣委及四軍四團的信(節選)-關於建立韓國民族自治區的問題」(1936. 3. 12.),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東滿地區革命歷史文獻匯編』 下冊(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1999), 1453쪽.

1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4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46-249쪽.

그런데 길동성위는 일제의 대토벌을 겪으면서 이 시기가 중국민족의 존망과 조선민족의 해방이 달린 결정적 고비로 인식하고, 만주지역에 조선인들의 독자적인 민족해방단체와 민족혁명군을 조직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길동성위 집행위원회 주석 겸 제2로군 총지휘 저우바오중(周保中)은 1939년 11월 “당중앙의 지시원안에 근거하여 길동한교(吉東韓僑) 항일민족혁명군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들의 항일민족혁명군은 정식으로 창설되지 않았다.¹⁵⁾

만주에 있던 중국공산당의 당조직과 군대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중공 중앙이 아니라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1933년 당시 동만특위(東滿特委)의 기관지는 『양조전선(兩條戰線)』이었는데, 이 명칭은 왕밍(王明)이 1931년 2월에 자신의 혁명노선을 정리해 간행한 『양조노선(兩條路線)』에서 따온 것이다.¹⁶⁾ 왕밍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1931년부터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 대표를 맡았다. 그는 코민테른과 스탈린(Joseph Stalin)의 노선에 충실한 인물로, 1930년대부터 중공 중앙에서 마오쩌둥(毛澤東)과 항일민족통일전선론을 둘러싸고 노선투쟁을 벌였다. 왕밍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강조한 반면,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군사적 독립을 강조했다.¹⁷⁾

만주의 당조직과 군대는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과 왕밍의 항일민족통일전선론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고, 이 같은 사상적 경향은 길동성위와 동북항일연군에 지속되었다. 그리고 길동성위는 일제의 대토벌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인들과의 통일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만주의 조선인들에게 민족혁명의 과제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조선인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해방단체와 민족혁명군을 결성하고자 계획했다. 따라서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일제의 대토벌 과정에서 민족혁명의 과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인정된 민족혁명의 과제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동북항일연군이 1940년 전후 만주에서 유격근거지를 상실하고

15) 「周保中關於整頓七軍及工作調動問題及崔石泉的信」(1939. 11. 15.), 中央檔案館 외 편,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31(中央檔案館, 1989), 326쪽, 김성호, 앞의 책, 428쪽에서 재인용.

16)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3: 봉화』(민족출판사, 1989), 169쪽.

17) 구소영, 「王實味事件을 통해서 본 1942年 延安整風運動」, 『慶北史學』 27(2004), 85-87쪽.

만주국 군·경의 토벌을 피해 소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생존한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은 1940년 12월 하순부터 1941년 1월 상순까지 소련 하바로프스크에서 '만주전당대표자회의(滿洲全黨代表者會議)'를 개최해 동북항일연군의 새로운 투쟁방침을 결정하였다.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주 전체의 당 영도기관으로 전만임시위원회(全滿臨時委員會)를 선거하며, 위원 후보는 웨이정민(魏拯民)·저우바오중(周保中)·김책(金策)으로 하고, 별도로 소련공산당 동지 1명에게 공작상 지도를 요청한다.
2. 중국공산당 중앙의 비준을 거쳐 동북항일연군을 국민정부의 전국항전군대(全國抗戰軍隊)계통에 편입한다.
3. 통일적 최고군사영도기관인 총사령부를 구성한다. 제1로군과 제2로군을 통합하며, 제1로군·제2로군에서 월경한 부대로 5개 지대(支隊)를 편성한다.¹⁸⁾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은 새로 당지도기관을 구성하고, 항일연군을 중국공산당 중앙의 군사계통에 편입시키고자 구상했다. 이 결정은 항일연군이 소련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 중요한 점은 동북항일연군의 월경이 소련 극동군사령부와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2로군 총지휘 저우바오중과 소련 극동군사령부의 장성들은 1940년 봄부터 9월 말까지 서신을 통해 동북항일연군의 월경문제를 논의했다.¹⁹⁾ 소련극동군은 동북항일연군을 소련에 집결시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구상하였다. 그러나 저우바오중은 동북항일연군이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부대이며, 소련은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각국 공산당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그러나 중공 중앙의 결정을 만주에 전달하던 '중공상해중앙국(中共上海中央局)'이 1935년 2월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만주성위(滿洲省委)와 중앙당의 연락은 이미 끊긴 상태였다. 이후 만주의 당조직과 동북항일연군은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다.²¹⁾ 동북항일연군

18) 東北抗日聯軍鬪爭史 編寫組, 『東北抗日聯軍鬪爭史』(人民出版社, 1991), 441쪽.

19) 위의 책, 437-438쪽, 442쪽.

20) 周保中, 『東北抗日遊擊日記』(人民出版社, 1991), 572쪽.

21) 吉林省社會科學院 編, 『東北抗日鬪爭史論叢』1輯(吉林省社會科學院, 1983), 93-104쪽, 尹輝鐸, 『日帝下 '滿洲國' 研究: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一潮閣, 1996), 32쪽에서 재인용.

은 전당대표자회의 이후 중공 중앙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²²⁾ 이에 따라 항일연군을 중공 중앙이 지휘하는 전국항전군대계통에 편입시키려는 계획도 좌절되었다. 결국 동북항일연군은 소련으로 입경하면서 중공 중앙의 당적·군사적 지도와 사상적 영향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동북항일연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1940년 말부터 1941년 초까지 생존 대원들이 소련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2개 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보로실로프(현 우수리스크)의 남야영(南野營, B야영)과 비야츠크의 북야영(北野營, A야영)에 주둔하였다. 남야영에는 제1로군 경위려(警衛旅)·제2방면군(方面軍)·제3방면군이 주둔하였고, 북야영에는 제2로군 총지휘부 직속부대와 2지대, 제3로군 총지휘부가 주둔하였다. 김일성(金日成)·최현(崔賢)·김일(金一, 朴德山) 등은 남야영으로 들어갔고, 최용건(崔庸健)·강건(姜健, 姜信泰)·김경석(金京石)·박락권(朴洛權)·리영호(李永鎬)·최용진(崔勇進) 등은 북야영으로 들어갔다.²³⁾ 1942년 1월 22일 현재 남야영의 인원은 114명, 북야영의 인원은 158명으로 총 272명이었다.²⁴⁾ 생존 대원 중 197명은 하바로프스크와 보로실로프에 있는 극동군 첩보기관에 배치되었다.²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1938년에 중국공산당 길동성위로부터 민족혁명의 과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1930년대부터 코민테른, 스탈린,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 왕밍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과 왕밍의 항일민족통일전선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1940년부터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중공 중앙의 당적·군사적 지도와 사상적 영향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반대로 중공 중앙과의 단절은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에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동북항일연군의 내부적 변화와 소련 극동군화(極東軍化)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 이후 소련 영내에서 활동하면서 내부적으로

22) 김동화 외, 『연변당사 사건과 인물』(연변인민출판사, 1988), 232쪽.

23) 東北抗日聯軍鬪爭史 編寫組, 앞의 책, 442-445쪽.

24) 周保中, 「A·B野營人員統計表」(1942. 1. 22.), 楊昭全·李鐵環 編,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鬪爭資料匯編』(遼寧民族出版社, 1992), 935-936쪽.

25) 周保中, 앞의 책(1991), 659-660쪽.

변화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내부적 변화는 조선인 집단의 출현과 조선인 지휘관들의 위상 변화이다. 소련으로 입경한 이후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처음으로 동일집단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만주 시절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각각 제1로군·제2로군·제3로군에 분산되어 활동하였다. 물론 이들은 일부나마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정치·군사활동은 각 부대별로 전개하였다. 그런데 남만·동만·북만에서 각각 활동해온 조선인들은 1941년 초 소련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동일한 집단에서 활동하게 되었다.²⁶⁾

나아가 동북항일연군 지도부는 남야영과 북야영의 인원을 통합하여 1942년 7월 16일 동북항일연군교도려(東北抗日聯軍教導旅)라는 단일부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인들은 모두 만주 시절의 직책 대신 교도려의 편제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았다. 특히, 조선인들은 교도려가 편성되면서 처음으로 단일부대에서 동일한 정치·군사훈련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교도려 지휘부는 남야영의 병력을 모두 북야영에 집결시켜 오랫동안 정치·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²⁷⁾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1940년부터 단일부대에서 함께 정치·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적 동질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조선인 대원뿐만 아니라 조선인 지휘관들도 처음으로 단일부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일성, 김책(金策), 최용건은 1941년 하바로프스크에서 처음 만났다.²⁸⁾

중요한 점은 입소(入蘇) 이후 조선인 지휘관들의 위상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42년 8월 1일 동북항일연군교도려가 조직되었을 때, 생존한 조선인 간부들도 교도려의 간부로 임명되었다. 이 간부지위를 통해 각 인물들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최용건은 교도려 부참모장, 김일성은 제1대대장, 안길(安吉)은 제1대대 정치부대대장, 강건은 제2대대 정치부대대장, 허형식(許亨植)은 제3대대장, 김책은 제3대대 정치부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조직인 동북특별지구국에서는 최용건이 서기, 김일성과 김경석이 부서기로 선출되었다.²⁹⁾

최용건이 부참모장으로 임명된 이유는 제7군 대리군장(代理軍長)을

26) 김일성, 앞의 책, 196-197쪽.

27) 周保中, 앞의 책(1991), 658-659쪽.

28) 김일성, 앞의 책, 172쪽.

29) 東北抗日聯軍鬭爭史 編寫組, 앞의 책, 449쪽, 452쪽.

역임한 최고위급 조선인 군사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정규군관학교인 운남강무학교(雲南講武學校) 보병과를 졸업했고,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에서 교관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용건은 교도려 여단장(旅團長) 저우바오중과 운남강무학교 동기생으로 만주 시절부터 저우바오중의 원조를 받아왔다. 만주 시절, 김일성의 지위는 최용건이나 북만임시성위(北滿臨時省委) 서기(書記)인 김책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입소 이후 최용건 다음의 제2인자로 급부상했다. 반면에 김책은 오랫동안 소련군의 입소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위가 추락하였다. 또한 그는 최용건과 달리 군관학교 출신이 아니었다.³⁰⁾

소련 시절 김일성의 지위가 급상승했지만, 조선인 중 최고위급 간부는 최용건과 김책이었다. 최용건은 나이, 투쟁경력, 교도려의 부참모장 직책, 여단장 저우바오중과의 관계 면에서 단연 최고의 실력자였다. 김책은 교도려에서 지위가 추락했지만, 나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당경력, 전 북만임시성위 서기라는 정치적 위상에서 최용건에 버금가는 간부였다. 그러나 최용건과 김책은 김일성이 가진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일성이 국경과 가까운 동만주에서 활동한 것과 1937년 6월 보천보전투(普天堡戰鬪)로 인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반면, 두 사람은 주로 북만주에서 활동한 관계로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³¹⁾

또한 최용건과 김책은 김일성과 다른 당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용건은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지 5년 뒤인 1926년에 입당한 이래 중국공산당의 북벌전쟁(北伐戰爭)·광주봉기(廣州蜂起)에 참여한 노당원(老黨員)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1928년부터 조선공산당 만주총국(滿洲總局, 화요파)에 파견되어 조선공산당 당원을 중국공산당에 가입시키는 사업과 당조직 사업을 전개하였다.³²⁾ 김책은 1927년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화요파)에 가입해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間島共產黨事件)으로 투옥

30) 최용건은 운남강무학교 제17기 보병과 생도였고 저우바오중은 제17기 공병과 생도였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년간에 걸친 오랜 전우'였고, 저우바오중은 白族 출신으로 소수민족인 조선인 간부를 적극 후원하였다. 김책은 소련군의 입소요청을 반대했기 때문에 교도려에서는 정치 부대대장과 당지부국 집행위원에 머물렀다. 와다 하루키 저, 이종석 역, 앞의 책, 187쪽, 198-200쪽, 206-207쪽, 278쪽.

31) 보천보전투는 전투 당일인 1937년 6월 5일 《東亞日報》가 호외 1면에 전투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조선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普天堡襲擊速報」, 《東亞日報》, 1937년 6월 5일자, 號外; 위의 책, 278-280쪽.

32) 현천추, 「저명한 동북항일련군 장령 최용건」, 김양 주편, 『항일투쟁반세기』(요녕민족출판사, 1995), 347-349쪽.

된 인물이다. 그는 1930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북만주에서 당조직과 반일유격대의 창설사업을 주도하였다.³³⁾ 이에 비해 김일성은 조선공산당과 관련 없이 1931년에 처음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³⁴⁾

최용건은 중국공산당의 노당원이며 김책은 조선공산당 화요파의 초기 당원이다. 특히, 김책은 조선공산당 화요파에서 활동했는데, 이 당시 조선공산당의 파벌투쟁은 코민테른이 1928년 12월에 조선공산당을 해산 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³⁵⁾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최용건은 전형적인 마오쩌둥계 인물이고, 김책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두 사람에 비해 김일성은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한 시기가 짧고 종파주의의 영향도 없었다.

김일성은 입소 이후 정치·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받으면서 점차 교도려위원회와 소련극동군으로부터 일제 패망 후 한반도에 파견할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저우바오중은 극동군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김일성에 대해 '가장 좋은 간부이며 중공의 고려인동지 중 가장 우수한 분자라고 평가했으며, 소련극동군 지휘부도 김일성이 '규율준수, 모범성, 그리고 부하 통솔력에서 뛰어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³⁶⁾ 그 결과, 김일성은 1945년 7월 말 일제 패망 후 교도려위원회가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공작단위원회(朝鮮工作團委員會)'에서 군사정치책임자로 임명되었다.³⁷⁾ 그리고 1945년 8월 25일, 소련극동군이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편성한 제1대대에서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³⁸⁾

동북항일연군의 두 번째 내부적 변화는 군대의 성격이다. 동북항일연군은 1942년 8월 1일 "동북항일연군교도려"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교도려에는 "소련극동군 독립88여단(제8461보병특별여단·국제여단)"이라는 소련군의 부대명칭도 부여되었다. 그리고 교도려는 1942년 9월

33) 김태국, 「중국공산당 북만성위서기 김책」, 김양 주편, 위의 책, 424-426쪽.

34)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110쪽.

35)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3(청계연구소, 1986), 347-349쪽.

36)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현실』 28(1998), 273쪽.

37) 신주백, 앞의 책, 489-490쪽.

38) 제88특별정찰여단장 저우바오중(周保中), 참모장 차린스키, 「북조선에서 일하게 될 제2극동전선 제88특별정찰여단 제1대대 명단」(1945. 8. 25.), 러시아국방성 중앙문서 보관소,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한울, 2008), 61쪽에서 재인용.

13일 군대의 당지도기관으로 “독립보병려 중공동북당조직특별지부국(獨立步兵旅 中共東北黨組織特別支部局)”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교도려에는 소련공산당 당위원회도 설치되었다. 동북특별지부국과 교도려 내부에 설치된 소련공산당 당조직의 관계는 “형제당의 관계”로 규정되었다.³⁹⁾ 그 후 1942년 겨울, 동북특별지부국이 취소되고 중공당항일연군교도려위원회(中共黨抗日聯軍教導旅委員會)가 조직되었다.⁴⁰⁾ 즉, 1942년부터 동북항일연군에는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당조직이 동시에 존재했다.⁴¹⁾

따라서 1942년 이후 동북항일연군은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과 교도려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부대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공산당과 소련극동군의 지도와 지휘를 받는 부대였다. 동북항일연군은 1935년 2월부터 입소 이후까지 중공 중앙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입소 이후에는 중앙당·팔로군총사령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명령도 받지 못했다.

1940년 전후 소련 입경은 동북항일연군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전환점이었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공 중앙뿐만 아니라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과도 연락이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동북항일연군의 당간부들은 자체적으로 당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교도려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당적으로 동북항일연군교도려위원회와 소련공산당 당조직의 지도를 받고,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소련극동군의 지휘를 받았다.⁴²⁾ 비록 동북항일연군이 독립성을 보유하고 중공 당조직의 지도가 관철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39) 東北抗日聯軍鬪爭史 編寫組, 앞의 책, 450-452쪽; 胡淑英, 「東北抗日聯軍教導旅始末」, 黑龍江省委 黨史研究室 編, 『黑龍江黨史資料』 10輯(黑龍江省委 黨史研究室, 1987), 178쪽.

40) 신주백, 앞의 책, 486-487쪽.

41) 동북항일연군교도려에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당조직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국공산당의 관영출판사와 후룡강성위원회에서 공간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도려에 2개 당조직이 설치된 것은 코민테른의 1국1당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국 영토 안에는 중국공산당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1국1당 원칙은 건지되고 있었다. 교도려에 소련공산당 당조직이 설치된 것은 교도려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 소련 영토에서 조직된 특수상황 때문이다. 교도려는 당시 당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급당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당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소련공산당 당조직이 설치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 부대는 명칭과 지휘계통상 소련극동군의 일부이자 중국공산당군대의 일부로 존재했다.

42) 중국자료는 명확히 소련극동군이 교도려를 대신해 제88독립여단을 지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직지휘에 있어서는 쏘련원동군에서 교도려를 대리관리하고, (쏘련원동방면군 제88독립보병려)라는 번호를 달았다.” 김동화 외, 앞의 책, 233쪽.

는 항일연군이 소련군의 단위부대에 흡수된 형태였다.⁴³⁾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입소 이후 단일부대에서 정치교육과 군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지구전쟁(持久戰論)』, 『삼풍정돈(三風整頓)의 보고』, 『중공중앙의 당성 강화에 관한 결정』 등을 학습하였다. 그러나 입수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문헌이 적었기 때문에 주로 소련문헌으로 학습하였다. 정치학습의 주요 내용은 소련공산당사(蘇聯共產黨史)였다. 그리고 1936년에 개정된 소련 헌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이와 함께 소련사회주의 건설의 성과, 독소전쟁(獨蘇戰爭)의 상황, 국제정세 등을 학습하였으며, 러시아어 학습이 엄격히 요구되었다.⁴⁴⁾ 또한 조선인들은 새로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교육받았다. 이들은 소련군 장교의 지휘하에 소련극동군에서 지급한 「보병훈련대강」을 기초로 현대적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았다. 훈련 내용은 유격전술, 군사지형, 폭파, 낙하산 강하, 무전기 조작, 스키타기, 도강 등이었다.⁴⁵⁾

정치교육과 군사교육 중에서 주로 진행된 것은 군사교육이었다. 이들은 1942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420시간의 정치·군사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시간은 전술교육 80시간, 폭파 70시간, 정치·사격교련·스키 각 60시간, 총검술·실탄사격 각 24시간, 지형학 20시간, 내무규정 8시간이었다. 일부 대원들은 소련군으로부터 첩보훈련을 받았다. 또한 매일 오후 2시에 군중공작, 오후 3시에 러시아어를 학습하였다.⁴⁶⁾ 동북항일연군이 중점적으로 받은 교육은 정찰·첩보작전에 필요한 지형학·폭파·사격·스키·총검술과 소련군의 전술·내무규정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 과목은 소련군의 전술교육이고, 매일 러시아어 학습이 진행되었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코민테른·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중국 홍군의 군사교리에 따라 당·군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소련으로 이동한 이후부터 주로 소련공산당의 문헌과 소련군의

43) 와다 하루끼 저, 이종석 역, 앞의 책, 268쪽.

44) 위의 책, 272-273쪽; 원인산, 「야영정치군사훈련」,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4: 결전』(민족출판사, 1991), 283쪽.

45) 원인산, 위의 글, 283-284쪽.; 김창국, 『남만인민항일투쟁사』(연변인민출판사, 1986), 226-227쪽.

46) 周保中, 앞의 책(1991), 641-642쪽.

군사교리를 학습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교도려(제88독립여단)에 소속되면서 정식으로 소련군 군사계급을 받았다.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는 군관 직책이 부여되었고, 소련 군관과 동일한 급료가 지급되었다.⁴⁷⁾ 여단장 저우바오중은 소련군 소좌계급을 받고, 최웅건·김일성·김책·장건·안길은 대위계급을 받았다.⁴⁸⁾

즉, 동북항일연군교도려(제88독립여단)의 조선인들은 입소 이후 동북항일연군 군인이자 소련군 군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홍군의 지휘계통에서 분리되었고, 소련극동군의 지휘계통에 편입되었다.⁴⁹⁾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주로 소련공산당의 정책과 노선을 학습하고, 군사적으로는 소련극동군의 지시에 따라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습득하였다. 결국,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 이후 점차 중국공산당의 군대에서 소련극동군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Ⅲ. 조선의용군의 변화와 정풍운동·지휘권 문제

1. 조선의용군의 정풍운동과 민족혁명론의 약화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1940년 전후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던 또다른 조선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군이다. 동북항일연군이 지속적으로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조선의용군은 부대 계통과 사상의 측면에서 중국 관내(關內)⁵⁰⁾ 조선인 독립운동세력과 중국공산당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2개 무장부대 모두 중국공산당의 노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 노선의 계통도 다르다.

47) 기광서, 앞의 논문, 269쪽.

48) 와다 하루키 저, 이종석 역, 앞의 책, 268쪽.

49) 중국공산당은 1941년 1월부터 국민당의 제2차 반공공세로 인해 관내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중앙혁명군사위원회는 1941년 1월 혁명군대를 수습하기 위해 명령을 하달했는데, 이 명령에는 화중·서북지역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동북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환남사변과 관련하여 발표한 명령 및 담화-중국공산당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명령」(1941. 1. 20.), 모택동, 『모택동선집』 2(민족출판사, 1992), 977-985쪽.

50) 관내는 河北省 秦皇島에 있는 山海關의 안쪽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산해관은 중국 대륙의 관문이다.

조선의용군의 정치·군사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인 조선의용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좌파세력은 새로운 통일전선체로서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결성하였다. 민족전선연맹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조선혁명은 민족혁명이고, 그 전선은 ‘계급전선’이나 ‘인민전선’이 아닐 뿐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의 이른바 ‘국민전선’과도 엄격히 구별되는 민족전선”이라고 천명하였다.⁵¹⁾ 민족전선연맹은 독립을 위한 혁명의 성격을 민족혁명으로 규정하고, 통일전선의 성격도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이 아니라 민족전선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전선연맹은 조선의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 국민정부와 교섭하였다. 그 결과,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직한 혁명무력이었다.⁵²⁾ 조선의용대는 설립과정에서 공동전선체인 극동반과시스트동맹의 국제의용군(國際義勇軍)으로 구상되기도 했으나, 조선인들의 노력으로 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따라서 조선의용대는 민족전선연맹이 지향한 전 민족적 통일전선론에 따라 민족혁명을 위해 활동하는 군사조직이었다.⁵³⁾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1940년 3월부터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다. 1940년 3월부터 1941년까지 조선의용대의 절반 이상이 화북(華北)지역으로 북상하였다. 북상 이유는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화북에 투쟁근거지를 구축하고 동북(東北)지역의 조선무장부대와 연합한다면 조선혁명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⁴⁾ 그러나 만주의 동북항일연군이 1940년부터 소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연합투쟁은 실현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1941년 7월에 조선

51) 韓相禱, 「中日戰爭 직후 協동전선운동과 全國聯合陣線協會」,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1996), 131-132쪽.

52) 「朝鮮義勇隊成立宣言」(1938. 10. 10.), 楊昭全 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1919-1945)』 下冊(遼寧民族出版社, 1987), 850-851쪽.

53) 葉인호, 「조선의용대의 창설과 한·중 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11(1999), 138-167쪽.

54) 金榮範, 「朝鮮義勇隊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988), 498-503쪽.

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었다. 지대장은 박효삼(朴孝三), 부지대장은 이익성(李益星), 정치지도원은 김학무(金學武)가 맡았다. 제1대장(隊長)은 이익성, 제2대장은 김세광(金世光), 제3대장은 왕자인(王子仁, 본명 崔仁)이 맡았다.⁵⁵⁾ 화북지대는 명목상 중경에 있는大本부(隊本部)의 지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1941년 1월 10일에 조직된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青年聯合會)의 지도를 받았다.⁵⁶⁾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회장은 무정(武亭), 부회장은 진광화(陳光華)가 맡았다.⁵⁷⁾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강령에서 조선 전 민족의 반일전선을 옹호할 것, 전 조선민족해방전쟁을 발동할 것, 화북지역 조선인민을 보호할 것, 중국항일전쟁에 적극 참가할 것, 독립되고 자유로운 조선민족의 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주창하였다. 청년연합회는 항일운동의 목표를 “조국광복”으로 선언함으로써⁵⁸⁾ 민족혁명론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청년연합회의 영도에 따라 일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화북지대원은 대부분 청년연합회 성원이었다. 청년연합회는 조선청년전위동맹·조선민족혁명당·조선해방동맹·한국국민당 등이 연합한 통일전선조직이었다. 청년연합회는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도 조선의용군 화북지대(朝鮮義勇軍 華北支隊)로 개칭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는 공식적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의 행동대로 규정”되었다.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팔로군 근거지에서 정권문제와 중국공산당 변구정부(邊區政府)의 경제정책 등을 토론하고, 팔로군의 혁명운동 경험과 작풍을 학습했다.⁵⁹⁾

조선독립동맹은 화북지역에 조직된 조선인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전선 조직이었다. 독립동맹은 강령에서 “본 동맹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통치를 전복하여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55)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편제와 대원 현황은 장세윤, 「조선의용대의 조직편성과 구성원」, 『한국근현대사연구』 11(1999), 65쪽 참조.

56) 金榮範, 앞의 논문, 505-506쪽.

57) 김순기, 「조선의용군사령원 무정장군」,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1991), 344쪽.

58) 『華北朝鮮連合會綱領』(1941. 1. 10.),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共產主義運動篇)』 V (原書房, 1967), 994쪽.

59) 廉仁鎬, 「朝鮮義勇隊 華北支隊의 八路軍과의 連帶鬭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1996), 166-187쪽.

목적”으로 하며, “전 조선민족의 반일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립동맹은 “전 조선민족반일무장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혁명무장대오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다.⁶⁰⁾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은 민족주의자 김두봉(金斗奉), 부주석은 사회주의자 최창익(崔昌益)과 한빈(韓斌)이 맡았다.⁶¹⁾

조선의용군의 혁명론은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의용대부터 이어져 온 민족혁명론에 입각해 있다. 이 혁명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혁명이 아니라 조선혁명이었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의 통일전선론이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에 근거한 반면, 조선의용군의 통일전선론은 관내 조선인 독립운동세력의 민족통일전선론을 계승하고 있었다. 이 민족통일전선론은 동북항일연군이 영향을 받은 왕밍의 항일민족통일전선론과 달리 조선인 독립운동세력 간의 통일전선이었다.

1942년 7월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설립될 당시 조선의용군은 독립동맹의 영도를 받는 군대였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1943년부터 내부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요인은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에서 전개된 정풍운동이다. 이 정풍운동은 마오쩌둥이 1942년 2월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전개한 정풍운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공산당의 정풍운동은 중국혁명의 성격문제와 전략문제를 둘러싼 당내투쟁이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립되고, 중국공산당의 홍군은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팔로군에 편입되었다. 이때 중국공산당 지도부에서는 항일민족통일전선을 둘러싼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사상투쟁의 주역은 중공 중앙의 마오쩌둥과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 대표 왕밍이었다. 왕밍은 “모든 것은 항일민족통일전선에 의해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당과 적극적인 합작을 모색했다. 반면에 마오쩌둥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기본정책은 인정하지만, 공산당 등 각 당파의 정치적·군사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²⁾ 정풍운동의 공격목표는 주관주의(主觀主義)·중

60) 「華北朝鮮獨立同盟綱領」(1942. 8. 25.), 楊昭全 等編, 앞의 책, 1119-1120쪽; 「華北朝鮮獨立同盟綱領」(1941年 8月 中旬頃), 金正明 編, 앞의 책, 992쪽.

61) 「관내에서 싸운 투사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1991), 303쪽.

62) 구소영, 앞의 논문, 85-86쪽.

파주의·당팔고주의(黨八股主義)였고, 주관주의의 핵심은 교조주의(教條主義)였다.⁶³⁾ 교조주의는 바로 왕밍의 혁명노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혁명노선에 대한 사상투쟁의 과정에서 1940년 1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한 혁명론인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을 발표하였다. 그는 무산계급·농민·지식인·민족자산계급⁶⁴⁾을 혁명의 기본세력으로 설정하고, 각 혁명적 계급의 연합독재를 통한 신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을 주장하였다.⁶⁵⁾ 마오쩌둥은 1940년 3월 혁명정권의 성격을 공산당원·비당좌파·중간파가 연합한 “항일민족통일전선정권”으로 규정하였다.⁶⁶⁾

그러자 왕밍은 1940년 3월 『중국의 불세비키화를 강화하는 투쟁』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을 비판하였다. 이 책은 왕밍이 1931년 발간한 『양조노선(兩條路線)』을 스스로 재발간한 것으로⁶⁷⁾, 소련공산당의 노선에 충실한 저작이었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1941년 5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혁명의 실제운동과 결합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경험주의(經驗主義)와 교조주의를 대대적으로 비판하였다.⁶⁸⁾ 즉, 마오쩌둥은 정풍운동을 통해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을 추종하는 왕밍 등의 교조주의를 비판함으로써 당내에 중국식 혁명론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정풍운동은 1943년부터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내부에서도 실시되었다. 독립동맹과 의용군은 1943년도 핵심 공작으로 대외 내부의 단결·강화와 대외의 발전, 대외선전사업의 강화, 활동지역

63) 존 킹 페어뱅크 저, 중국사연구회 역, 『新中國史』(까치, 1995), 421쪽.

64) 無產階級은 프롤레타리아를 번역한 용어로, 노동계급을 가리킨다. 무산계급은 중국에서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자 중국사회에서 각성이 가장 높은 계급이다. 民族資產階級은 민족부르주아지를 번역한 용어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억압 밑에 있는 나라에서 중소자본주의 성분을 대표하는 계급이다. 이 계급은 중국의 혁명 시기에 혁명성과 타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한수산 편, 『정치사전』(홍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1), 351-352쪽, 380쪽.

65) 모택동, 「신민주주의론」(1940. 1.), 『모택동선집』 2(민족출판사, 1992), 848-854쪽. 마오쩌둥은 1936년 연안에서 발표한 「矛盾論」과 「實踐論」을 통해 독자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립했다. 그의 목표는 중국 민족에 관심을 가진 민족주의정당을 확립하는 것과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하는 것이었다. 존 킹 페어뱅크 저, 중국사연구회 역, 앞의 책, 417-418쪽.

66) 모택동, 「항일근거지의 정권문제」(1940. 3. 6.), 위의 책, 938-941쪽.

67) 구소영, 앞의 논문, 86-87쪽.

68) 모택동,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1941. 5. 19.), 『모택동선집』 3(민족출판사, 1992), 1008-1017쪽.

사업의 강화를 내걸었다. 이 가운데 대외 내부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방법은 학습반을 조직해 당문헌과 혁명이론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조선의용군은 평균 이상의 대원에게 정풍문헌인 22개 문헌을 학습시키고, 평균 이하의 대원에게는 일반적 혁명이론을 학습시켰다. 독립동맹과 의용군은 22개 문헌의 학습과정에서 정풍문헌의 기본정신을 습득해 이를 현재의 사업에 적용하고, 자아비판과 상호 비판을 통해 기존에 관내에서 전개된 혁명운동의 장점과 단점을 총결하기로 결정했다.⁶⁹⁾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정풍운동을 통해 화북 진출 이전의 혁명운동을 재평가하고, 대원들을 정풍문헌의 정신으로 재교육하고자 구상했다. 그런데 정풍운동이 진행되자 독립동맹과 의용군 내부에서는 치열한 분파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분파투쟁의 중심인물은 중국공산당의 근거지 연안(延安)에서 온 무정과 관내의 국민당지구에서 복상한 최창익이었다. 무정은 1925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노당원이자 전형적으로 중국공산당에서 성장한 인물이며⁷⁰⁾, 최창익은 1923년부터 조선공산당 서울파에 가입한 이래 주로 조선인들이 중국 관내에 결성한 민족통일전선조직에서 활동한 인물이다.⁷¹⁾

분파투쟁은 과거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와 조직 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무정은 1920년대 조선공산당운동과 국민당지구의 독립운동을 기회주의·종파주의운동이라고 비판하였고, 최창익은 반대로 이 두 운동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무정은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빌려 최창익 등 복상파가 장악하고 있던 독립동맹 중앙조직을 외부에서 장악해 들어갔다. 분파투쟁의 과정에서 무정이 대원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킨 반면, 최창익은 독립동맹 강령의 중심사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옹호하였다.

69) 「朝鮮獨立同盟·義勇軍 1943年工作方針(提綱)」, 楊昭全 等編, 앞의 책, 1125-1126쪽.

70) 무정은 1905년생으로 1925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1934년 10월부터 중국공산당의 2만 5,000리 대장정에 참여했다. 그는 1937년 8월부터 팔로군총부 작전과장을 역임했고, 1938년 1월부터 팔로군 초대 포병단 단장을 역임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1940년에 연안에서 태항산으로 파견되었다. 김순기, 앞의 글, 337-345쪽.

71) 최창익은 1896년생으로 1923년부터 고려공산청년동맹과 조선공산당 서울파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1926년에는 서울파 대표자로 코민테른에 파견되어 조선공산당 지부승인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는 1926년 민족통일전선단체인 민족주비회 결성에 참여한 이래, 1936년 조선민족혁명당 간부,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 간부 등을 역임하면서 줄곧 민족통일전선론을 견지했다. 최창익은 김원봉의 지도노선에 반발해 1938년 민족혁명당을 탈당하여 조선청년전위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의용대의 화북 진출을 주도했다. 조선독립동맹에서는 중앙상무위원과 서기부장을 맡았다. 강만길·성대경 엮음, 앞의 책, 506-507쪽.

분과투쟁의 결과, 독립동맹·의용군 내에서 무정의 1인 지도체제가 점차 굳어졌고, 독립동맹·의용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악력이 현저히 강화되었다.⁷²⁾

정풍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의용군 내부의 사상적 경향은 크게 변화하였다. 중국공산당의 노선에 충실한 무정이 점차 조선의용군을 장악하면서 내부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한 마오쩌둥의 혁명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코민테른과 스탈린의 노선에 입각한 왕밍의 혁명노선과 항일민족통일전선론은 조선의용군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관내의 국민당지구에서 활동해온 북상파가 점차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과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통해 계승된 민족혁명론과 민족통일전선론은 약화되었다.

2. 조선의용군의 지휘권 변화와 중국공산당 군대화(軍隊化)

조선의용군이 1940년을 전후해 겪은 또다른 변화는 지휘권 문제였다. 창설 당시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행동대오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1943년 1월부터 지휘권이 변화하였다. 조선독립동맹은 1월 6일 상위회(常委會, 常務委員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무정은 ‘동방각민 족반파쇼동맹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무정은 회의에서 ‘반파쇼대동맹의 결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반파쇼대동맹은 “이래로 금일까지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는 영도기구가 구성되지 못하고 온 것”이라면서 조선의용군의 지도부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반파쇼대동맹의 구체적인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화북조선독립동맹은 군중단체인 점에서 무장대오를 영도할 수 없으므로 조맹은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를 영도할 수 없다(조선의용군 화북지대는 조맹의 행동대가 될 수 없다는 것).” ②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의 간부는 장차 반파쇼대동맹 대표가 지정한다.” 조선독립동맹은 무정이 전달한 결의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 접수”하였다.⁷³⁾

반파쇼대동맹은 조선독립동맹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

72) 염인호, 앞의 책, 203-218쪽.

73) 崔昌益, 『朝盟報告草案：華北朝鮮獨立同盟에 對한 一般的 情形』(미간행, 1943), 504-505쪽,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군노획문서(등록번호-BU0000007336).

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조선의용군 간부의 인선은 상무위원회 회의 이후 반파쇼대동맹 대표가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날 무정은 반파쇼대동맹 대표 자격으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간부 중 지도원 김창만(金昌萬)과 부지대장 이익성을 현직에서 해임하였다. 그러나 화북지대장 박효삼의 현직은 존속시켰다.⁷⁴⁾ 이것이 무정이 최초로 행사한 조선의용군의 간부 인선이었다.

무정이 김창만과 이익성을 해임한 것은 두 사람이 조선민족혁명당을 탈당한 조선청년전위동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임되면서 청년전위동맹의 지도자였던 최창익의 정치·군사적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⁷⁵⁾ 조선의용군의 지도부는 상무위원회 회의 이후 박효삼 1인으로 구성되었다. 박효삼은 김창만·이익성과 달리 조선민족혁명당에 잔류해 중앙검사위원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화북지대에서 모두 지대장을 맡았다. 박효삼은 조선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겸 군사부장이자 조선의용군 간부훈련반 교장으로로서 조선의용군의 창설·전투·교육·훈련을 총괄적으로 주도하였다.⁷⁶⁾

동방각민족반파쇼대동맹은 1941년 10월 27-30일 팔로군 총사령 겸 중국공산당 정치위원 주더(朱德)가 중국에 있는 각 민족대표를 소집해 결성한 반제민족통일전선단체이다. 이 대회에서 무정은 폐회사를 하였고, 김구(金九)와 함께 동방각민족반파쇼대표대회 의장단에도 선출되었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조선의용군은 이 대회에 축전을 발송했다. 대회 결과, 주더가 반파쇼대동맹 주석으로 선출되고, 무정은 주더와 함께 8명의 “연맹영도성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반파쇼대동맹은 “동방민족항일의용군중대(東方民族抗日義勇縱隊)”를 조직하고, 이 부대를 화북전선에 배치해 항일공작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⁷⁷⁾

조선의용군의 지휘권은 반파쇼대동맹의 결정에 따라 1943년 1월 6일부로 조선독립동맹에서 반파쇼대동맹 주석인 주더에게 넘어갔다. 당시 주더는 팔로군 총사령이었으므로, 결국 조선의용군의 지휘권은 팔로군총사령부로 이양된 것이다. 또한 반파쇼대동맹은 새로 동방민족항일의용군

74) 崔昌益, 위의 자료, 505쪽.

75) 嚴印浩, 앞의 책, 221쪽.

76) 姜丹길·성대경 엮음, 앞의 책, 219쪽.

77) 「組織東方各民族反法西斯大同盟」, 楊昭全 等編, 앞의 책, 1460-1466쪽.

종대를 편성해 조선의용군을 종대에 편입시키고자 계획하였다. 따라서 조선의용군의 성격은 1943년 1월부터 조선독립동맹의 행동부대에서 팔로군총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국제의용군의 일부로 변화하였다. 이 같은 지휘권 변화에 따라 무정은 1945년 5월 당시 조선독립동맹의 공작결과를 독립동맹 중앙이 아닌 팔로군총사령 겸 당중앙해위(黨中央海委) 위원인 주더에게 보고하였다.⁷⁸⁾

그러나 조선독립동맹 상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립동맹과의용군 내부에는 지휘권 문제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다. 최창익은 “개인 간에 토론된 문제를 소개”한다는 전제하에 내부의 이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제일, 만일 조맹(조선독립동맹)은 군중단체인 까닭에 무장대오를 영도못한다면, 동방각민족반파소대동맹도 군중단체인 까닭에 무장대오를 영도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고, 제이, 조의군(조선의용군) 화북지대는 직접영도자가 조성되지 못한 점에서 그는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답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⁷⁹⁾(괄호는 인용자)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의 일부 인물들은 결정 이후에도 반파소대동맹 역시 독립동맹과 같은 군중단체이므로 지휘권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반파소대동맹이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용군의 영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휘권이 이양되었으므로 민족군대인 조선의용군이 취소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견이 있었던 이유는 북상파가 국민당지구에서부터 화북지역까지 계속해서 관내 조선독립운동과의 통일성과 민족통일전선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북지역에 도착한 이후에도 “조선반일민족통일전선의 관점에서 중국 관내 조선혁명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조의대(조선의용대-인용자)의 원명을 개칭”하지 않았다.⁸⁰⁾

1943년의 정풍운동과 지휘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은 무정 등 마오쩌둥의 혁명론·계급연합론을 주장하는 세력과

78) 武亭, 「華北朝鮮獨立同盟 1944年1月 至1945年5月 工作經過報告」(1945. 5. 9.), 楊昭全等編, 위의 책, 1129쪽.

79) 崔昌益, 앞의 자료, 505-506쪽.

80) 위의 자료, 503쪽.

최창익 등 조선독립운동의 민족혁명론·민족통일전선론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을 구성하고 있던 인물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과 조직에서 활동하다 합류한 사람들이었다. 1943년 12월 말 현재 독립동맹 맹원들의 가입 전 활동조직을 보면, 조선청년전위동맹원이 50명, 조선민족혁명당원이 23명, 조선해방동맹원이 5명, 한국국민당원이 1명, 무소속이 11명, 신래자(新來者)가 85명이었다.⁸¹⁾

최대인원은 독립동맹에 처음 가입한 신래자였고, 다음은 전(前) 조선청년전위동맹 맹원과 전 조선민족혁명당 당원이었다. 조선청년전위동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은 모두 1937년 말에 조직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함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했던 조직들이다. 그러나 청년전위동맹은 화북 진출 주창자들이 민족혁명당과 결별하고 새로 만든 조직이었다.⁸²⁾ 최창익은 바로 이 청년전위동맹의 책임자로서 화북 진출을 관철시킨 인물이었다.⁸³⁾ 독립동맹의 최대인원은 신래자인데, 무정은 1943년 분과투쟁 당시 이들을 우대해 기존 지도부와 대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⁸⁴⁾ 즉,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1943년 이후에도 무정세력과 부상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은 1943년 1월부터 팔로군총사령부가 접수하였다. 그러나 팔로군총사령부는 1943년 1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조선의용군의 간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한 적이 없다. 유일한 간부 인선은 1943년 1월 6일 무정이 반파쇼대동맹 대표의 이름을 빌려 조선독립동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장 박효삼을 현직에 존속시키고, 부지대장과 지도원을 해임한 결정이었다.

팔로군총사령부가 최초로 조선의용군 간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한 것은 1945년 8월 11일이다. 이날 팔로군총사령관 주더는 조선의용군에 「연안총부명령 제6호(延安總部命令 第六號)」를 하달했다. 주더는 이 명령서에서 “소련 홍군의 중국 및 조선 경내 작전과 배합하여 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현재 화북에서 대일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의용군의

81) 崔昌益, 「華北朝鮮獨立同盟 盟員入盟前의 社會關係」, 앞의 자료, 458쪽.

82) 嚴仁浩, 앞의 논문, 138-147쪽, 158쪽.

83) 張世勳, 앞의 논문, 43-49쪽.

84) 嚴仁浩, 앞의 책, 215쪽.

총사령 무정, 부사령 박효삼·박일우(朴一禹)는 즉각 소속부대를 통솔하고 팔로군과 원(原) 동북군 각 부대를 따라 동북으로 진병(進兵)하여 적위(敵僞)를 소멸하고 동북의 조선인민을 조직하여 조선해방의 임무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⁸⁵⁾

「연안총부명령 제6호」에는 조선의용군의 지도부 현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팔로군총사령부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 받은 후 1945년 8월 11일 처음으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팔로군총사령부는 명령서에서 조선의용군의 총사령을 무정, 부사령을 박효삼과 박일우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팔로군의 자료 중 명령 제6호 이전에 무정·박효삼·박일우에게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연안총부명령 제6호」는 명령서인 동시에 임명장이었다. 특히, 부사령으로 임명된 박일우는 1940년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를 졸업한 중국공산당 중앙 측 인사였다.⁸⁶⁾ 그는 무정과 함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중공 중앙의 노선을 관철시킨 인물이다.

조선의용군의 공식적인 지휘관은 1945년 7월까지 화북지대장 박효삼이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무정이었다. 1942년 말 화북지역 태항산(太行山)에 도착한 무정은 화북조선혁명군사학교를 창설하여 간부를 양성함과 동시에 조선의용군의 반일작전을 지도하였다. 중국문헌은 무정이 1942년 말에 “조선의용군 사령원으로 임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무정의 공식 직책은 화북조선혁명군사학교 교장이었다.⁸⁷⁾ 그러나 무정은 조선의용군의 주력이 위치한 태항산에서 실제로 조선의용군을 직접 지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군총사령부는 1945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무정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서 팔로군총사령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정은 조선의용군의 주력이 연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태항산에 남아 간부를 양성하고 동북·화북 각지의 조선인지구에 지하일꾼을 파견했다.

85) 「延安總部命令 第六號」(1945. 8. 11.), 楊昭全 等編, 앞의 책, 1455쪽.

86) 박일우는 1904년생으로 만주의 연길현 용정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관내로 들어가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진찰기변구에서 縣長으로 활동했고, 1940년 중공 중앙당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45년 초 연안에 건립된 조선혁명군정학교에서 부교장 겸 당위원회 서기를 맡았다. 강만길·성대경 엮음, 앞의 책, 207쪽.

87) 김순기, 앞의 글, 345쪽.

그런데 무정은 1945년 7월 말, 팔로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태항산을 떠나 연안으로 들어갔다. 무정의 공식적인 활동은 8월 1일 개최된 연안포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연설한 것이 확인된다. 그는 연안에서 “많은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고 한다.⁸⁸⁾ 팔로군총사령부가 무정을 연안으로 호출한 것은 소련이 대일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팔로군총사령부는 대일전 개시에 대비해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의 임무와 역할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의용군 지휘부에 대한 인선문제도 8월 1-10일 사이에 연안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조선의용군의 사상적 경향은 1944년부터 급격히 변화한다. 조선의용군의 주력은 1943년 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정(軍政)훈련을 받기 위해 연안으로 이동했다. 일행은 팔로군 분대(分隊)를 합해 200여 명이였다.⁸⁹⁾ 이들은 조선혁명군정학교에서 중국공산당의 군사교리와 정치사상을 학습하였다. 군사과목은 내무규정, 대열기본동작, 소대·중대·대대 전술, 무기원리, 사격술, 지형학, 통신술, 부대관리·교육법 등이고, 정치과목은 시사, 사회발전사, 정치경제학, 철학, 신민주주의론, 조선혁명운동사, 군대 중의 정치공작 등이였다.⁹⁰⁾ 또한 김두봉(金斗奉)을 비롯해 연안에 집결한 조선인 200여 명은 연안군정학교 부교장이자 심사 총책임 박일우의 지휘 아래 밀정 색출을 겸한 간부심사를 받았다. 심사대상은 주로 민족혁명당·청년전위동맹 등 국민당지구에서 온 인물과 소련에서 온 인물들이였다.⁹¹⁾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소속된 조선인들은 이 같은 군사·정치 학습을 통해 점차 중국공산당의 혁명론과 팔로군의 군사교리를 체득하였다. 조선독립동맹은 1945년 5월 11일 중공 제7차 대표대회에 보낸 축하편지에서 “중국공산당의 수령이신 모택동 동지의 빛나는 로작 『신민주주의론』과 그이의 영명한 령도작풍은 우리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지침”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제7차 대표대회에 독립동맹을 대표해 참석한 박일우는 “저는 조선동지들과의 몇 달 동안의 학습과 연구를 거쳐 모 주석의 『신민주주의론』은 조선인민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며,

88) 김순기, 앞의 글, 345쪽.

89) 리화림, 「진리의 향도 따라」,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246쪽.

90) 武亭, 앞의 글, 1159-1160쪽.

91) 염인호, 앞의 책, 297쪽, 304-305쪽.

“『신민주주의론』이라는 이 이론은 중국혁명은 물론 조선인민의 정치로선, 조직로선과 군사로선 등 3개 면의 중요한 문제들도 해결”했다고 발언하였다.⁹²⁾

조선의용군은 1944년부터 군정학습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혁명론과 계급연합에 기초한 통일전선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과 달리 코민테른·스탈린의 노선에 입각한 왕밍의 혁명론과 항일민족통일전선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아가 조선의용군은 신민주주의혁명론을 민족혁명의 정치노선·조직노선·군사노선으로 설정하였고, 마오쩌둥의 혁명론과 영도방식을 민족혁명의 “지침”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조선의용군은 1940년 이후 조선독립운동세력의 군대에서 중국공산당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IV. 맺음말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모두 1940년을 전후해 정치·군사적 특징이 변화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1936년부터 일제의 대토벌을 거치면서 민족혁명의 과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1930년대부터 코민테른, 스탈린,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 왕밍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과 왕밍의 항일민족통일전선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소련 입경 이후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 중앙의 당적·군사적 지도와 사상적 영향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입소 이후 동일집단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동일집단의 지도자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은 1942년 이후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당적으로 교도려위원회와 소련공산당 당조직의 지휘를 받고, 군사적으로 소련극동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소련군의 군사계급을 부여받고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학습했다.

92) 조선독립동맹, 「중공7차대표대회에 보내는 조선독립동맹의 축하편지」(1945. 5. 11.)·「중국공산당 제7차대표대회에서 한 왕외동지의 연설」(1945. 5. 21.),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앞의 책, 667-670쪽.

그 결과, 동북항일연군은 1942년 이후 점차 중국공산당의 군대에서 소련극동군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조선의용군은 1943년에 진행된 정풍운동과 지휘권 이양의 과정에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정풍운동의 과정에서 최창익 등 북상파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고 이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래 견지해온 민족혁명론도 약화되었다. 반면에 중국공산당과 무정은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했으며, 의용군 내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한 마오쩌둥의 혁명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용군에서 코민테른·스탈린의 노선에 입각한 왕밍의 혁명론과 항일민족통일전선론은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조선의용군은 분과투쟁을 거치면서 점차 무정의 1인지도체제가 굳어졌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1940년 이후 인적 동질감이 강화된 동북항일연군과 달리 분과투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또한 조선의용군은 1943년 1월 반파쇼대동맹의 결정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세력이 지도하는 민족혁명의 군대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혁명론의 근원도 달랐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코민테른과 왕밍을 비롯한 코민테른 주재 중공대표단의 노선에 입각해 혁명론을 정립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은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을 수용하면서 민족부르주아지를 포함한 통일전선의 구축과 노농소비에트정권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인민정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그런데 코민테른은 1924-1928년에 점차 ‘불세비키화’되고 1928-1933년에 ‘스탈린주의화’된 바 있다.⁹³⁾ 따라서 이들의 혁명론은 코민테른·소련공산당·스탈린의 혁명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조선의용군은 동북항일연군과 달리 중국공산당 중앙의 노선에 입각해 혁명론을 정립하였다. 이들은 군정학교에서 중공 중앙의 정치사상을 습득하면서 마오쩌둥의 계급연합에 기초한 통일전선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한 신민주주의혁명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혁명론을 통해 교조주의를 비판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왕밍 등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의 노선을 추종하는 당내세력이었다. 1940년

93)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 저, 황동하 역, 『코민테른-레닌에서 스탈린까지』(서해문집, 2009), 12쪽, 308-315쪽.

이후 동북항일연군이 스탈린·소련공산당·소련극동군의 영향을 받았다면, 조선의용군은 마오쩌둥·중국공산당·팔로군의 영향을 받았다.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변화는 이들이 1945년 해방 이후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동북항일연군은 소련극동군의 부대였으므로 극동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와 달리 조선의용군은 중국 팔로군의 부대였으므로 팔로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동북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북한지역을 점령한 주체는 바로 소련군이었다. 따라서 조선인 정치세력에게 소련군과의 관계는 해방 직후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1945년 9월 2일 극동군사령부가 도·시·군에 설치할 소련군 위수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선정되어 북한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김일성과 김책 등 조선인들은 소련군 군인의 신분으로 9월 19일 원산으로 귀국했고,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사령부의 후원하에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시작했다.⁹⁴⁾ 반면에 조선의용군은 8월 11일 팔로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관내를 출발했지만, 주력부대가 동북지역의 심양(瀋陽)에 도착한 것은 11월 3일이었다.⁹⁵⁾ 이들은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주력부대를 입북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무정파 최창익 등 고위간부들만 12월 초에 독립동맹의 이름을 내걸지 않는 조건으로 입북하였다.⁹⁶⁾

동북항일연군과 국내의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의용군이 입북하기 약 2개월 전인 10월 10일에 이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을 설립해 북한지역의 정치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의 민족주의자들도 11월 3일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을 창당해 정치세력을 결집하고 있었다.⁹⁷⁾ 이에 비해 조선의용군은 12월에 입북했기 때문에 정치질서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소련군사령부에 마오쩌둥 계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북항일연군에 비해 정치적 후원을 받지 못했다.

94) 대표적으로, 김일성은 평안남도 위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김책은 함흥시 위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김국후, 앞의 책, 68-69쪽, 76-78쪽.

95) 「해외투쟁의 血劇史—華北서 온 女闘士 金命時 會見記」, 《해방일보》, 1945년 12월 28일자.

96) 중앙일보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중앙일보사, 1992), 161쪽.

97) 김선호, 「해방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1(2006), 287-289쪽.

결국,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 해방 이후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은 1940년 전후에 진행된 정치·군사적 변화였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東亞日報》, 「普天堡襲擊速報」. 1937년 6월 5일자(號外).

《해방일보》, 「해외투쟁의 血劇史—華北서 온 女闘士 金命時 會見記」. 1945년 12월 28일자.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共產主義運動篇)』 V. 原書房, 1967.

崔昌益, 『朝盟報告草案: 華北朝鮮獨立同盟에 對한 一般의 情形』. 미간행, 194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군노획문서(등록번호-BU0000007336).

東北抗日聯軍史料 編寫組, 『東北抗日聯軍史料』 上.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楊昭全 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1919-1945)』 下冊. 遼寧民族出版社, 1987.

楊昭全·李鐵環 編,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鬭爭資料匯編』. 遼寧民族出版社, 1992.

주보중, 『주보중문선』. 연변인민출판사, 1987.

_____, 『東北抗日遊擊日記』. 人民出版社, 1991.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編, 『東滿地區革命歷史文獻匯編』 下冊. 中共延邊州委黨史研究室, 1999.

黑龍江省委 黨史研究室 編, 『黑龍江黨史資料』 10輯. 黑龍江省委 黨史研究室, 1987.

2. 단행본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3. 청계연구소, 1986.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2008.

김동화 외, 『연변당사 사건과 인물』. 연변인민출판사, 1988.

김성호,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김양,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요녕민족출판사, 2001.

김양 주편, 『항일투쟁반세기』. 요녕민족출판사, 199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창국, 『남만인민항일투쟁사』. 연변인민출판사, 1986.

모택동, 『모택동선집』 2·3. 민족출판사, 1992.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3.

와다 하루끼 저,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2.

尹輝鐸, 『日帝下 ‘滿洲國’ 研究: 抗日武裝鬭爭과 治安肅正工作』. 一潮閣, 1996.

조선의용군발차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존 킹 페어뱅크 지, 중국사연구회 역, 『新中國史』. 까치, 1995.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3: 봉화』. 민족출판사, 1989.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4: 결전』. 민족출판사, 1991.

중앙일보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중앙일보사, 1992.

G. M. 디미트로프 지, 김대건 편역, 『통일전선연구: 반과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 거름, 1987.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 지, 황동하 역, 『코민테른-레닌에서 스탈린까지』. 서해문집, 2009.

한수산 편, 『정치사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1.

軍史科學院 軍史歷史研究部, 『中國抗日戰爭史』上. 解放軍出版社, 1991.

蘭星會 編, 『滿洲國軍』. 蘭星會, 1940.

東北抗日聯軍鬪爭史 編寫組, 『東北抗日聯軍鬪爭史』. 人民出版社, 1991.

3. 논문

고양, 「동북(東北)과 화북(華北) 조선 항일지사의 특징 비교」. 『史學志』 43, 2011.

구소영, 「王實味事件을 통해서 본 1942年 延安整風運動」. 『慶北史學』 27, 2004.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현실』 28, 1998.

金榮範, 「朝鮮義勇隊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김선호, 「해방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1, 2006.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43, 2007.

廉仁鎬, 「朝鮮義勇隊 華北支隊의 八路軍과의 連帶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_____, 「조선의용대의 창설과 한·중 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11, 1999.

尹輝鐸, 「抗戰時期的 華北과 東北, 抗日戰術과 鬪爭環境의 比較研究」. 『中國史研究』 22, 2003.

장세운, 「조선의용대의 조직편성과 구성원」. 『한국근현대사연구』 11, 1999.

_____,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2, 2007.

韓相禱, 「中日戰爭 직후 협동전선운동과 全國聯合陣線協會」,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국 문 초 록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은 모두 1940년을 전후로 정치·군사적 특징이 변화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1936년부터 일제의 대토벌을 거치면서 민족혁명의 과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1940년에 입소한 이후 동일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동일집단의 지도자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은 입소 이후 소련극동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소련군의 군사계급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동북항일연군은 1942년 이후 점차 중국공산당의 군대에서 소련극동군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조선의용군은 1943년부터 정풍운동과 지휘권 이양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정풍운동의 과정에서 최창익 등 부상파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고 이들이 주창해온 민족혁명론도 약화되었다. 반면에 중국공산당과 무정은 의용군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했으며, 대열내부에 마오쩌둥식 혁명론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조선의용군은 1943년 1월부터 조선독립운동세력이 지도하는 민족혁명의 군대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은 코민테른·소련공산당·스탈린의 혁명론과 왕밍의 항일민족통일전선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와 달리 조선의용군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혁명론과 계급연합에 기초한 통일전선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940년 이후 동북항일연군이 주로 스탈린·소련공산당·소련극동군의 영향을 받았다면, 조선의용군은 주로 마오쩌둥·중국공산당·팔로군의 영향을 받았다. 1940년 전후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변화는 이들이 1945년 해방 이후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투고일 2017. 3. 17.

심사일 2017. 4. 3.

게재 확정일 2017. 5. 24.

주제어(keyword) 동북항일연군(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88독립보병여단(88th independent infantry brigade), 조선의용군(Korean Volunteer Army), 조선독립동맹(Korean Independent League), 코민테른(Comintern),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정풍운동(Rectification Campaign), 소련극동군(Soviet Far Eastern Army), 팔로군(Eighth Route Army), 김일성(Kim, Il-Sung)

Sino-Soviet Relations and Change of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and Korean Volunteer Army before and after 1940

Kim, Seon-ho

Both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NAJUA) and the Korean Volunteer Army(KVA) have changed political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1940. Koreans in the NAJUA began to work together in a single unit in the Soviet Union for the first time in 1940. Kim Il-sung(金日成) suddenly emerged as a leader of the Korean people at this time. In addition, since 1942, the NAJUA has been command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and the Soviet Communist Party(SCP), and has been commanded by the Soviet Army. As a result, the NAJUA has changed from the Chinese Communist Army to the Soviet Army since 1942.

Since 1943, the KVA have changed their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Rectification Campaign"(整風運動). In the course of the rectification campaign, Choi Chang-ik(崔昌益) lost his grip on the army, and the national united front was also weakened. On the contrary, Kim Moo-jung(金武亭) secured control over the army, and the Mao Zedong(毛澤東)'s revolutionary theory was spread in the KVA. The KVA was divided after the sectarian struggle. Since January 1943, the KVA changed from the army of the National United Front to the army of the CCP.

The NAJUA was influenced by the revolutionary theory of the SCP. On the contrary, the KVA were influenced by the revolutionary theory of the CCP. However, there was a common point in the revolutionary theory of the NAJUA and the KVA. After around 1940, both the NAJUA and KVA were putting the national united front over the class struggle and planning to build the people's democratic government, not the soviet government.